

“5·18 특별법, 강력한 조사권한 가져야”

국가차원 공식 진상보고서·진실 고백 가해자 화해조치 등 오늘 공청회 앞 의견 다양...9일 국방위회의서 법 통과 결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일정이 이번 주 본궤도에 오른다.

5월 단체,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문가들은 지난 38년간 수차례 5·18진상규명 활동이 이어졌지만 모두 미완으로 끝난 만큼 강력한 진상 조사권한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법안제정을 위해 여망을 결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어 8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특별법 통과 여부가 가려진다. 법안은 국방위를 거치면 마지막 관문인 오는 20일·28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의 하나인 이번 공청회에는 김경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김 지부장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주제 진술에서 ‘국가 차원의 공식적 진상보고서 필요’,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조사권한의 실질적 강화방안’ 등 핵심 현안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진상보고서는 현재까지도 ‘폭동’, ‘북한군 개입설’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왜곡과 논란을 막기 위해 국가가 공인하는 5·18 역사를 쓰자는 주문이다.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는 특별법이 책임자 처벌이 아닌 진상규명 의지가 담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발 더 나아가 5월 관련자들에게 대한 적극 증언이나 참여

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포상금 지급·가산점 등) 부여도 지역의 여망이다.

김 지부장은 “5월 진상조사 권한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는 관련자 동행명령제도와 청문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소장은 “특별법의 필요성” 주제 진술에서 국가보고서 채택을 강력히 주장한다. 1988년 국회청문회, 1995년 검찰조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과거 국가의 의한 진상규명 작업은 진행됐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있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직·간접적 이해관계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은 조사 요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5·18기록관은 5일 보도자료에서 1994년, 1995년 두 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1994년부터 이듬해 7월4일까지 전두환·노태

우 등 5·18 관련자 269명을 조사했지만 12·12사건은 ‘기소유예’, 5·18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995년 11월 30일 서울지검이 설치한 ‘12·12 사건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도 역시 비슷한 한계가 있었다.

5·18기록관은 “수사 내용 면에서 2차 수사 또한 1차 수사와 다를 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차 수사는 사건의 실제규명보다는 1차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자 처벌 성격이 강한 것이 한계였다”고 지적했다.

5·18기록관 관계자는 “1차 조사 주임검사를 맡은 장운석 검사는 공안검사이며 2차 조사의 김상희 검사는 특수통이였기 때문에 이들의 이력과 5·18수사의 밀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발표명령자, ‘5·18기획실’,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영산 유골 DNA 분석

5·18 행불자 유가족 118명 혈액 추가 확보 시급

28년 전 광주 부영산과 주남마을에서 발굴된 유골 3기의 유전자 재분석 결과 5·18 행방불명자 유족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남대 산학협력단(법의학고실 박종태 교수)에 의뢰해 실시한 부영산과 주남마을 발굴 유골 3기의 유전자(DNA) 분석이 성공했다. 법의학고실은 유골 유전자를 5·18행방불명자 유가족 DNA와 비교했으나 서로 일치하는 유가족을 찾지는 못했다.

부영산과 주남마을 유골은 1989년에 발굴됐으며 1998년 서울의대 조사팀이 최초로 감정했지만,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재분석 의뢰는 2002년 이후 15년 이상 시간이 경과해 관련 과학기술이 발달한 만큼 유전자 재검사 필요성이 제기돼 이뤄졌다.

전남대 법의학고실은 광주시가 2000년 11월에 확보한 5·18행불자 124명의 가족(299명) 혈액을 보관하고 있다. 1990년부터 7차에 걸쳐 접수된 242명의 행불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아직 확보되지 않은 118명의 행불자 유가족의 혈액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유가족들에게 혈액채취 협조 안내문 발송 등 전국적인 가족찾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광희기자 krah@kwangju.co.kr



“진실도 바로 설까” 선체직립을 앞둔 5일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돼 있다. 세월호 선체직립이 완료되면 미수습자를 위한 선체 내 마지막 수색 작업이 진행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직립작업 시작

오늘 오후 착공식...미수습자 수색 재개 방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진행된다. 세월호 선체의 직립이 결정되면서 그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탐색을 하지 못했던 구역의 미수습자 수색도 재개할 전망이다.

5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선체직립과업을 수행하는 현대삼호중공업은 6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목포신항에서 ‘선체 직립

작업해왔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세월호 선체직립이 갖는 의미는 선체를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체직립과정 자체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충격을 치유하는 과정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모듈 트랜스포터(SPMT) 이용해 세월호를 선체를 부두 안벽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선조위는 오는 5월6일까지 세월호 조사 활동에 전념한 뒤 8월6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현영기자 young@

오늘의 날씨

07:28 해돋이 / 18:05 해질 / 11:04 달뜨기

봄은 어디쯤... 서해안에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

지역	날씨	기온(°C)
광주	눈	-10/-3
목포	눈	-8/-3
여수	눈	-9/-2
나주	눈	-13/-2
완도	눈	-8/-2
구례	눈	-11/-4
강진	눈	-11/-1
해남	눈	-11/-2
장성	눈	-13/-3
보성	눈	-13/-3
순천	눈	-9/-2
영광	눈	-12/-4
진도	눈	-7/-2
전주	눈	-12/-3
군산	눈	-10/-4
남원	눈	-15/-4
축산도	눈	-4/-1

◇비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서해안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남부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해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서부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남부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생활지수

지수	상태
매우높음	눈
높음	눈
매우높음	눈
중음	눈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16	06:13
	23:43	18:32
여수	간조	만조
	06:47	00:51
	19:07	13:04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C)
7(수)	눈	-9/2
8(목)	눈	-4/7
9(금)	눈	-3/7
10(토)	눈	-1/7
11(일)	눈	-3/1
12(월)	눈	-4/4
13(화)	눈	-2/8

전국 북극발 한파 내일부터 주춤

다시 몰아친 북극발 한파가 7일부터 6일 이상 적설량은 광주·전남 2~7cm, 전남 서해안에 5~10cm로, 일부 지역은 5~10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특히 날씨가 풀릴 것으로 기대되는 7일부터는 그동안 영하권인 최고기온 1도에서 3도까지 오른 것으로 예보했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끼고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전남 동부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당분간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화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코레일, 설 역귀성 KTX 할인상품 판매

코레일이 설 연휴에 역귀성과 역귀경하는 고객편의를 위해 KTX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5일부터 판매한다. KTX 역귀성 상품은 설 연휴에 운행하는 KTX 중 일부를 지정해 최대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는 상품과 이용 구간과 관계없이 4명이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등 2가지가 있다.

역귀성 특별상품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역 구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1인 당 1회에 최대 4매, 왕복 최대 8매까지 코레일 멤버십 회원만 살 수 있다.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고 특실 요금은 할인에서 제외된다.

구매 당일 반환하면 무료지만 예매는 날부터 열차 출발 1일 전까지 15%, 출발 당일 40%, 출발 이후 7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2018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상반기 총 회기 : 5회 / 30일 [정례회 : 0 / 임시회 : 5회 30일]

구분	회기	회의 일수	주요 내용
제229회 임시회	01. 16(화) ~ 01. 23(화)	8	· 2018년도 시정계획 보고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제230회 임시회	02. 07(수) ~ 02. 09(금)	3	· 조례안 등 안건심의
제231회 임시회	03. 13(화) ~ 03. 23(금)	11	·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상반기 의원 연찬회
제232회 임시회	04. 16(월) ~ 04. 20(금)	5	· 1회추경예산안 심의
제233회 임시회	06. 20(수) ~ 06. 22(금)	3	· 조례안 등 안건심의

시민과 함께 活民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활민)

정읍시의회

www.jcc.or.kr